

# 10월 광양관광이 빛난다... 예술, 영화, 미식이 한상에

## 광양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 등 다채로운 문화 향연

광양시가 예술의 빛과 영화의 감동, 솟 향 가득한 미식이 어우러진 축제로 도시 전역을 물들이며 1석 3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가을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광양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등 대규모 가을 페스티벌을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가장 먼저 막을 올리는 2025 광양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나선으로 나아가는: 생의 순환을 이루는 원인과 결과들'을 주제로 내달 4일까지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빛과 미디어, 도시공간이 결합된 예술축제로, 광양시청사와 광양예술창고, 인사리공원, 예담창고, 서울대 남부연습관 관사 등 도시 전역이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변신한다.

또한 한국과 오스트리아 린츠 작가들의 국제 교류전, 대학생 창작 작품전, 시민이 함께하는 미디어아트랩, 정책 포럼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예술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미디어 도시의 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은 영화와 음악,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진 남도의 대표로컬영화제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광양 일원에서 개최된다.

'빛과 절로 물들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스타인베크코리아 광양항, 광양시민광장, 전남도립미술관 등 도심 곳곳이 상영관으로 변신해 역동적인 남도의 매력을 선보이며, 총 12개국 81편의 작품이 무료로 상영될 예정이다.

특히 영화 '서울의 봄' 상영과 함께 김성수 감독과 배우 이성민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뮤지션 김사월의 특별 공연, 류현경·조은지 등 배우 출신 감독들의 연출작 상영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영화 '서울의 봄'은 반란군과 진압군의 대치 장면, 30경비단 부대 입구, 최규하 대통령 취임식 등이 광양항 세트장에서 촬영된 작품으로, 광양에서 다시 상영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더한다.

영화제의 세부 일정과 상영작 등 자세한 내용은 남도영화제 공식 누리집과 인



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광양읍 서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21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대한민국 3대 불고기 중 하나로 꼽히는 광양불고기의 진수를 즐길 수 있는 자리다.

조선시대부터 '천하일미 마로화적'이라 불릴 만큼 명성이 높았던 광양불고기는 청동화로에 참숯을 피우고 얇게 저민 소고기를 구리 석쇠에 구워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육즙을 자랑한다.

현재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K-푸드'로

자리매김하며, 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미식 문화를 대표하는 광양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광양시립예술단의 고품격 공연, 광양숯불창작소리, 광양시청년가요제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또한 매들이 포도존, 광양불고기 미니 어저 만들기, 황소인형 꾸미기, 떡메치기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 진도군, '천사 프로젝트 천사 보금자리' 준공식 개최 수해 피해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 선물

진도군은 지난 17일(금) 의신면에서 '천사 프로젝트 천사 보금자리' 준공식을 개최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박금례 진도군의회의장, 김인정 전라남도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관계자, 후원자,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천사 프로젝트 천사 보금자리'를 지원받은 가정은 지난해 여름에 내린 집중 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이며, 아동들이 있는 다자녀 가정이다.

피해를 입은 가정을 돕기 위해 총 2,744명이 후원에 참여해 약 2억 원

상당의 후원금과 후원 물품이 모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보금자리 공사를 시작했으며, 8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해 복층형 단독주택 구조의 새 보금자리를 완성했다.

'천사 보금자리'를 지원받은 가정은 "매년 장마철마다 집안에 물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안심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천일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라남도·신안군과 함께 「2025 소금박람회 "짠! 소금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번 소금박람회는 '짠! 소금 페스티벌'이라는 부제로 새롭게 기획했으며,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

## 2025 소금박람회 "짠! 소금 페스티벌" 개최

### 영광군, 17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 개최

와 연계해 가족 친화형 오감체험 축제로 펼쳐졌다.

행사는 총 5개 테마관과 21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소금의 역사와 생활 속 활용, 소금 카페, 소금 요리 시연 등 남

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됐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소금 놀이터, 소금 미식 체험, 소금을 활용한 과학 체험존, 현장 이벤트 공연까지 더해져 참여와 체험이

어우러진 흥겨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군 관계자는 "영광 갯벌에서 만들어진 천일염은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라며, "이번 소금박람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전남 구례군이 주최하고 (사)한국국악협회 구례군지부가 주관한 제29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구례심진아트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판소리 분야에는 초등부 14명, 중등부 15명, 고등부 8명, 성인부 73명, 일반부 15명, 명창부 9명 등 6개 부문 134명의 소리꾼이 참가했고, 고법 분야

## 제29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판소리부문 대상(대통령상)에 이다은 명창

에는 학생부 4명, 성인부 43명, 일반부 12명, 명고부 11명 등 4개 부문 70명의 고수가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회 결과, 판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은 이다은(33세, 전북 익산) 씨가 차지했으며, 상장과 함께 상금 2,000만 원, 그

리고 부상으로 구례군 제1호 명장 죽호바람 김주용 씨의 부채가 수여되었다.

또한, 고법 명고부 대상(장관상)에는 김민철(31세, 광주광역시)씨가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는 구례 출신

국창 송만갑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전통 국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단위 대회로,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하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국의 명창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고 우리 소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 대회가 우리 소리의 계승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7일 청소년센터에서 현업근로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매월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다.

영암군은 현업근로자의 안전의식 향

## 영암군, 현업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김성택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이 강사로 나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등을 다뤘다.

영암군은 올해 △추락·끼임 재해예방 조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험성 평가 교육도 병행해 왔다.

나형철 영암군 군민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으로 현업근로자들의 안전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제로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좀비 피해 달러라" 장성군 'J(제이)-라이트 런' 흥행 대박

### 황룡정원~황미르랜드 2.5km '밤길 달리기'... 재미·건강 다잡아

장성군이 올해 황룡강 가을꽃축제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J(제이)-라이트 런'이 500명 모집에 150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리는 등 큰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J-라이트 런'은 좀비와 저승사자 분장을 한 진행요원들을 피해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는 달리기 프로그램이다.

기록을 다투는 시합이 아니다 보니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오후 7시, 신나는 전자음악(EDM)에 맞춰 준비 운동을 마친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신호와 함께 가족·친구 단위로 조를 나눠 출발했다.

황룡정원 음악분수 뒤편에서 시작해 황미르랜드를 한 바퀴 돌아 '듀브' 장애물을 통과하고, 연꽃정원을 거쳐 다시 시작점으로 복귀하는 2.5km 코스였다.

좀비와 저승사자의 '습격'은 황미르랜드 인근에서부터 만날 수 있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좀비들이 참가자들을 향해 갑자기 튀어나오곤 했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한 김지혜 씨(장성읍)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놀랐는데, 아이들은 무척 즐거워 했다"며 "재미와 건강을 모두 얻은 듯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J-라이트 런' 종료 이후에는 경품 추첨과 이디엠(EDM) 댄스 파티,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다수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내년에는 참여 인원을 늘리고 콘텐츠를 보완해 더 재미있고 짜릿한 'J-라이트 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에 따르면 19일 방문객 규모는 10만여 명으로, 개막식부터 이를 동안 약 15만 명이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찾았다. 월요일인 20일 오후 5시 황룡정원에서 양금·장구 앙상블 '아이온'과 해금을 연주하는 '김단비 밴드 라인'이 출연하는 '빛의 울림 타악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